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5, pp. 283-294  
<https://doi.org/10.29212/mh.2022..125.28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서평] 6분법에 의한 이순신의 군사사상 고찰

— 김유석 지음, 『군사사상 총론』 (황금알, 2022) —

배일수\*

이 글은 전쟁기념관에 재직 중인 김유석 박사가 2022년 6월 황금알을 통해 출간한 『군사사상 총론』에 대한 서평이다. 필자는 『군사사상 총론』에서 새롭게 정립한 군사사상과 연계하여 이순신의 행적과 전쟁을 통해서 나타난 이순신의 군사사상을 고찰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1. 군사사상과 군사사상의 범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목도하듯이 현대전은 국가 총력전 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총력전을 요구하면서 세계질서와 경제 등 모든 분야가 이 전쟁에 영향을 받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몸살을 앓았고 지금도 진행

\* 육군대학 전략학처 교수

중이다. 감염병, 사이버 테러, 기후변화 등 소리 없는 안보이슈가 국가안보와 세계안보에 영향을 미치면서 나라마다 국가안보 전략을 새롭게 가다듬고 있다. 김유석의 『군사사상 총론』은 이러한 차원에서 그간의 군사사상이 전통적 안보에 기반하여 전쟁 중심의 군사 분야에 한정되어 발전하였다면 이제는 비군사적 분야, 전쟁 이외의 분야까지 포괄하여 정립해야 한다는 신개념 발전에 주춧돌을 놓았다.

종래의 군사사상 정의는 군사 활동이나 군사 문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견해나 관점을 말하는 군사(軍事, Military)와 사상(思想, Thought)의 합성어로 여겼다. 여기서 군사는 군대·군비·전쟁 등 군무에 관한 일을 말하며, 사상은 사고작용의 결과로 얻어진 체계적인 의식 내용을 말한다. 군사라는 용어에는 기능적 요소와 목적적 요소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기능적 요소란 정치·외교·경제와 같이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국가 고유의 무력적(武力的) 활동을 말하며, 군대의 관리와 운용을 통해서 그 소임을 다하게 된다. 목적적 요소란 여타의 국가 기능과 달리 무력이라는 수단에 의해 최종적인 정치 목적을 달성하거나 폭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되므로, 국가가 예상하는 전쟁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요망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폭력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상은 ‘경험에 기초한 현상에 대한 사유와 분석이란 사고 과정을 통해 도출한 것으로서 인간 생활을 이끌어가는 사고의 내용’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결국 사상이란 신체적 활동이나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현상·인간 현상과는 구분되는 ‘정신적 활동 내지 그 결과’에 해당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실이나 그것을 이루는 구체적인 실천에서 유리(遊離)된 추상적인 이론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이론과 실천을 이어주는 ‘매개체 또는 결합으로서, 말하자면 ‘이론적 실천’ 또는 ‘실천적 이론’의 성격을 지닌 인간 활동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체계성을 갖추지 않은 단순한 충동이나 우연적·조건반사적 주장이나 견해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고립되고 특정한 전문이론의 의미 영역 속에서 당대의 개인적·사회적 인간 생활과는 동떨어진 채 고도의 정합성을 이론 추상적인 학설이 있다면 그런 것 또한 사상의 중심주체가 될 수 없다. 즉, 사상은 체계화된 이론이 행동으로 나타났거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체계적인 생각을 말한다. 육군본부는 군사사상이란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및 장차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어떠한 전쟁 의지와 신념으로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 발발 시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군사력을 운용하는 개념적 사고체계’로 말하고 있다. 어떤 연구가는 ‘한 나라의 군사적 실체나 군사 조직의 행동, 혹은 군사이론·전략 등 군사전문가에 의한 군사이론이나 담론 등에 관류하는 무형적 가치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굳이 이러한 이론적 체계나 사상적 틀을 갖추지는 않더라도 모든 군사행동에는 나름대로 군사사상이 투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사사상’이라는 측면이 전쟁수행과 분리되어서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결국 군사력 건설에 대한 이성적 근거와 군사력 운용에 대한 윤리적 정당성 및 군사력 사용 방법에 대한 통일된 판단체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군사사상 총론』에서는 광의의 군사 개념을 적용하여 새로운 군사사상을 정의하였다. 정의 내용은 “군사사상이란 군사전문가나 여러 사람 또는 특정 조직이나 국가에 의해 전쟁과 전쟁이외의 군사 문제 전반(全般)을 대상으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고와 분석을 통해 미래에 군사 분야에 대한 방향을 일정한 원리와 통일성을 갖고 정립한 군사에 대한 사고작용의 내용이다.”라고 정의하였다.

군사사상의 범주는 그 정의로부터 찾아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때, 김유석은 군사사상 정의를 바탕으로 군사사상 범주를 6가지로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였다. 첫째 전쟁에 대한 인식과 이해, 둘째 전쟁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平時養兵], 셋째 군사력을 운용하여 전쟁수행[戰時用兵], 넷째 평시 국가안보 지원, 다섯째, 평시 국가정책 지원 수단으로서의 군사력 운용, 여섯째 평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군사력 관리 및 군 운영으로 구분된다. 이전 연구가의 군사사상 범주 구분은 정신적인 측면에서 ‘전쟁관, 전쟁수행 의지 및 신념’과 군사적 측면에서의 ‘군사력 운용’과 ‘군사력 건설’로 3분법을 사용하였다면 김유석은 광의의 군사사상 정의를 바탕으로 6분법으로 군사사상 범주를 제시하였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평(評)하고자 하는 책은 기존 군사사상의 정의를 새롭게 정립하면서 정의에 부합되게 확장된 6개 범주를 분석적으로 범주별로 함의를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손자의 군사사상 분석 예시’를 통해서 새롭게 제시한 『군사사상 총론』이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국가와 개인의 군사사상을 분석하여 도출하는데 유용함을 증명한 10여 년에 걸쳐 연구한 전문 서적이라 할 수 있겠다.

## 2. 책의 구성과 내용

저자는 이 책의 앞부분은 군사사상에 대한 순수 이론을 다루

고 있으며, 뒷부분은 이런 이론을 갖고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손자의 군사사상을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책의 전체 구성은 3부로 구성하였다. 먼저 제1부 ‘군사사상 기초이론’ 부분에서는 맨 먼저 제1장에 ‘군사사상을 접할 때 느끼는 몇몇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였다. 이 부분은 본격적인 군사사상 이론에 들어가기 이전 배경지식을 쌓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군사사상의 정의, 특성, 역할 등과 같은 기본 개념을 정립하였다. 군사사상의 정의를 새롭게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군사사상 정의는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이를 어떻게 보완하였는지를 제시했다. 또한 군사사상의 특성을 일반적인 사상의 특성과 군사사상만이 갖는 특성을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군사사상의 역할을 분야별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제3장은 군사사상의 범주를 다루고 있다. 현재까지 정립된 군사사상의 범주는 무엇이고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먼저 제시한 다음 기존에 있던 범주와 새롭게 선정한 것을 포함하여 분석적으로 총 6가지 범주별로 기본적인 접근 방향을 제시하고 분야별 세부 내용을 설명한 다음 군사사상에서 각각의 범주가 갖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제2부는 ‘군사사상 정립 및 분석이론’으로 군사사상 분석 방법론과 정립 방법론을 다루었다. 군사사상 분석 방법과 정립 방법에 대해 각각의 의미와 목적, 절차와 유의 사항 또는 영향요소를 제시하였다. 군사사상 이론은 군사사상을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지만, 군사사상을 정립하는 데 활용할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다. 군사사상은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나 개인의 군사사상을 정립하여 실제 국가안보 전략과 군사전략에 활용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제3부는 ‘손자의 군사사상 분석 예시’는 앞의 제1부와 제2부에서 제시한 이론을 토대로 군사사상 범주별 손자의 군사사상을 분석한 예시를 제시하였다. 예시를 통해 앞에서 언급한 각각의 군사사상 기초이론과 분석 및 정립 방법론을 좀 더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기술하였다.

### 3. 군사사상 분석과 정립

군사사상 분석은 국가나 개인 등이 정립한 군사사상에 대해 군사사상 이론을 기초로 분석하는 것이다. 군사사상을 대표할 만한 내용이나 주장이 무엇인지 따져보는 것이다. 군사사상을 분석하는 목적은 첫째, 군사사상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거나 응용하기 위한 밑바탕을 다지기 위함이다. 둘째, 전쟁이나 군사 분야에 대한 지혜나 혜안을 간접 경험하고 이를 기초로 군사 분야에 대한 지혜나 혜안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셋째, 정립한 군사사상이 적절한지 또는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식별하고 이를 보완함으로써 군사사상 정립과 관련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넷째, 군사사상의 범주별로 연계된 군사 이외의 분야들이 적절하게 국가안보 분야의 일부로서 연계되거나 협조 또는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다섯째, 군사사상을 정립하거나 군사 분야와 정책이나 전략 등을 수립할 때 다른 군사사상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참고하거나 활용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군사사상을 정립하거나 군사 분야와 관련하여 정책이나 군사전략 등을 기획 또는 계획하고자 할 경우에 손자의 군사사상, 미국의 군사사상,

북한의 군사사상, 이순신<sup>2)</sup>의 군사사상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거나 이를 참고하여 활용하면, 적절한 결과를 얻거나 창의적인 관련 사항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사사상을 분석하는 절차는 우선 군사사상의 범주별로 분석하여 해당 군사사상의 범주별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도출하는 것이다. 다음은 범주별로 분석한 것을 종합하여 대표적인 군사사상 내용을 도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당 군사사상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군사사상을 분석할 시 몇 가지 오류와 제한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다분히 추상적인 군사사상을 분석하다 보니, 정량적 분석의 제한으로 객관화의 한계, 대관 없이 부분이나 세찰에 집착하는 오류, 의도에 따라 임의 또는 자의로 분석하는 오류, 범주화 또는 단순화를 위해 무리하게 끼워 맞추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군사사상의 정립은 국가의 군사사상을 정립할 경우가 있을 것이고, 개인의 군사사상을 정립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국가의 경우를 보면 국가란 일정한 지역의 사람이 그들의 공동체적 필요를 위하여 창설한 것으로, 내외의 적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대표나 특정 집단 또는 관련자들이 주축이 되어 계획적으로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갖고 일정하게 체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국가를 지키는 역할을 다하는 군도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갖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그래서 군이 군사사상 정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개인이 군사사상을 정립하는 것은 대부분 그 사람의 일생 동안 생각이나 누적되고 사고의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된 내용을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

2) 이하 존칭과 계급, 직책을 모두 생략하고 '이순신'으로 약칭함.

과정에서 표출된다. 이러한 국가든 개인이든 군사사상을 정립하는 목적은 군사사상이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국방정책으로부터 군사전략, 평시 국가안보 지원, 평시 군사력 관리 및 운영, 군사 이외의 정치·외교·경제·과학기술·문화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군사사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군사 및 비군사적 안보 위협, 전쟁 및 전쟁 이외의 분야와 관련하여 군에 대한 국민과 정치요구, 전통 군사사상 및 역사, 외국의 군사사상, 지정학적 요인, 경제력과 산업기술·생산능력, 기타 시대적인 요구사항 등이다. 이러한 영향요소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고 개인별로 영향요소가 다를 수 있다. 이순신의 군사사상을 분석에 있어서 주된 영향요소는 일본의 군사적 위협, 지정학적 요인, 조선의 국방정책과 경제 능력, 국민의 저항정신, 일본의 군사전략 등이 영향을 미쳤다.

#### 4. 6분법에 의한 이순신의 군사사상 분석

김유석의 『군사사상 총론』 제3부에서 제시한 ‘손자의 군사사상’ 분석 결과를 표본으로 하여 이순신의 행적과 전쟁을 통해서 나타난 이순신의 군사사상을 고찰하여 제시하였다. 필자도 군사사상 6대 범주를 바탕으로 『군사사상 총론』에서 제시한 군사사상 분석방법론을 토대로 이순신의 사상을 범주별로 분석하고 범주별 핵심사상을 압축하여 절차대로 도출해 보았다.

이순신의 군사사상을 분석에 있어서 주된 영향요소는 일본의 군사적 위협, 지정학적 요인, 조선의 국방정책과 경제 능력, 국

민의 저항정신, 일본의 군사전략 등이 영향을 미쳤다. 첫 번째 범주인 전쟁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는 만전사상(萬全思想), 속승사상(速勝思想), 제승사상(制勝思想)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전쟁에 대한 수행 신념은 이순신의 군사적 천재성에서 엿볼 수 있었다. 전쟁 성격과 수행 양상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민관군 통합방위작전으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총력전 사상을 살펴볼 수 있다.

두 번째 범주인 전쟁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은 양적 확충 못지않게 질적 확충이 중요하고, 유형전력 못지않게 무형전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소신있게 전쟁 준비를 하였다. 군사훈련에도 창의적인 방법과 용병술을 이용하여 반복 훈련을 한 다음에 실전에 투입하였다. 특히, 이순신은 창의적 군사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거북선과 같은 신무기를 전력화하였다.

세 번째 범주인 전시 군사력으로 전쟁수 측면에서 보면, 이순신은 13척의 전함으로 일본 수군 130여 척의 전함을 수장시키는 리더십과 탁월한 군사력 운용으로 전쟁을 종결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국가전략 차원에서 육지와 해상에서 협공하는 일본군을 해상에서 결정적 전투를 하여 적의 해상수송로를 차단하고 일본군의 전략적 목표인 전라도 점령을 좌절시켰다. 전술적 차원에서는 학인진법 등을 형세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시켜 어린진형에서 학익진을 바꾸기도 하고 또는 이것을 기초로 하여 이합분산의 조합을 가미한 팔진기문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네 번째 범주인, 평시 국가안보 지원 차원에서 이순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전장에서 발휘하여 피란민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대민사상과 애민정신을 엿볼 수 있다.

다섯 번째 범주인 국가정책 지원 수단으로서 군사력 운용으로

이순신은 전사자가 발생 시 시신을 고향으로 보내고, 미망인과 가족에게 구휼조치를 시행한 것은 국가의 보훈정책을 군사지휘관이 전투현장에서 구현한 사례이다.

여섯 번째 범주인 평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군사력 관리 및 운용으로 이순신은 평시에 형성된 대군 신뢰로 전시에 민간어선과 민간인을 활용하여 군사작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평시 군령 집행은 엄격하게 하여 군사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엄격함도 엿볼 수 있었다.

6분법으로 이순신의 군사사상을 분석하면서 얻은 결과는 이순신 개인의 군사사상이 국가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순신 개인의 군사사상인 만전사상, 속승사상, 제승사상, 총력전사상, 애민사상, 보훈정신과 더불어 창의적인 전법 구사와 독창적인 무기를 개발로 군사적 승리뿐만 아니라 조선의 국방정책과 나아가 국가안보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도출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상을 다시 압축해 보면 만전, 속승, 제승, 군사혁신, 무형전력은 전장우위로 전쟁 승리를 조성하기 위한 여건조성과 전쟁종결 태세로 ‘총력전으로 강력한 전쟁 여건 조성’과 ‘속전속결’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임무형 리더십, 애민사상, 보훈사상은 최고 사령관의 책임감과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존을 최고 덕목으로 생각하는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사상을 견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상 중에서 최종 압축된 핵심사상은 ‘총력전, 속승, 제승, 군사혁신, 임무형 리더십, 애민’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압축된 핵심사상을 중심으로 이순신의 군사사상은 ‘국가 총력전으로 군사혁신과 임무형 지휘를 통한 속전속결전’이라 말할 수 있다. 이처럼 김유석의 『군사사상 총론』에서 제시한 군사사상 6대 범주별로 이순신의 군사사상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였다.

## 5. 이순신의 군사사상과 국방혁신 추진

김유석은 『군사사상 총론』에서 그간 군사사상이 전쟁 분야에 지나치게 한정하여 접근했던 것을 전쟁 이외의 분야와 비군사 분야를 포함하여 군사사상 정의를 새롭게 하고, 군사사상 분석과 정립을 체계화하여 국가 또는 개인의 군사사상을 도출하여 국가전략으로부터 국방정책, 군사전략 및 군사 이외의 분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냉전 이후 안보위협은 군사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분야까지 증가하였고,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사이버, 재난, 테러 등 군사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미래는 다영역에서 감염병, 사이버, 기후변화 등 신형안보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국방혁신 4.0은 앞으로 국방은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강한 국방을 건설을 목표로 5대 중점과 16개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전통적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비전통적 위협까지 고려하여 다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군사력 건설과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안보전략 범위 내에서 군사전략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군사사상 총론』에서 제시한 군사사상 정립과 분석방법을 기초하여 한국의 군사사상을 분석하고 정립하는 절차를 가지는 것도 의미 있다고 하겠다.

전략문화가 일반적으로 전쟁 및 전략에 관해 한 국가가 갖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명확히 구별되는 신념, 태도, 행동 패턴으로 본다면 이순신의 군사사상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략문화 속에

서 형성된 군사사상이라 할 수 있다. AI 기반 첨단과학기술의 강군 육성 목표로 ‘군사혁신 4.0’ 추진단이 출범하였다.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안보위협, 기술경쟁과 인구절벽 등의 도전요인을 극복하고 최적화된 과학기술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면면히 이어져 오는 전략문화 속에 우리의 군사사상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군사전략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가 아닐까 한다.